

세대를 이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창 5:1-32)

1. 셋의 족보에서 강조되는 키워드가 무엇입니까?(1-3절)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 (1) 셋의 족보에서 강조되는 키워드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고(1절), 아담은 자기 모양과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3절).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셋을 통해 계승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 (2) 셋의 후손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적통 계승자입니다: 가인을 낳았을 때 하와의 고백 속에는 “자기중심성”이 강조되고, 셋을 낳았을 때 아담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 중심성”이 강조됩니다. 아벨이 죽은 뒤 아담과 하와는 깊이 회개하고 믿음으로 셋을 길렀고, 셋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 (3) 하나님의 형상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이어집니다: 셋의 자손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적통 계승자라는 말은 단순히 ‘혈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영적 유산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자녀 세대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녀에게 성공과 성취만 물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전수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가정이나 공동체 안에서 성공이나 성취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기 위해서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2. 셋의 족보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창 10:1, 11:10-26, 마 1:1) 결국,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은 누구입니까?(요일 5:4-5)

[10: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11:10-26] 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26.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마 1:1]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요일 5:4-5]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 (1) 셋의 족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아담에서 노아까지 열 세대의 족보입니다. 이후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 셈의 계보는 셈에서 아브람까지 열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 족보는 결국 마태복음 1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 (2) 결국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본받는 성도입니다: 세상적으로 힘있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믿음으로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결국 세상을 이기고 땅을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깁니다(요일 5:4-5). 그들이 세상의 적통 상속자이고, 죄로 죽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세상의 거대한 힘이나 기준 앞에 주눅 들거나 위축되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의 참된 '적통 상속자'라는 영적 자부심을 현실 속에서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3. 에녹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연수가 365년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것은 무엇을 말해 줍니까?(창 5:21-23, 히 11:5)

[창 5:21-23] 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히 11:5]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 (1) **에녹의 이야기는 영생의 약속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셋의 족보에는 “몇 세에 누구를 낳고, 이후 몇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총 몇 세를 살고 죽었다”고 하는 생명과 죽음이 교차되는 기록 패턴이 반복됩니다. 이 패턴을 벗어난 예외가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이것은 죽음의 다른 표현이 아니라,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다는 뜻입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지는 7대손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어가는 의인들이 결국 영생을 상속받는다는 소망을 생생히 보여줍니다.
- (2) **에녹의 365년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해 줍니다:** 에녹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연수는 일 년 365일을 연상케 하는 365년입니다. 에녹은 일상 속에서, 24시간, 365일 내내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았습니다.
- (3)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입니다:**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고,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히 11:5).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고 의식할 때, 세상과 죄를 거스를 힘이 나옵니다.

나눔

요즘 내 생각과 선택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내가 믿음으로 바꾸어야 할 생각, 태도, 행동은 무엇입니까?

4. 노아를 낳고 아버지 라멕이 무슨 기도를 합니까?(29절)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 (1) **라멕은 노아를 낳고 쉼과 위로를 구하는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쉼, 안식, 위로)라고 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이것은 죄의 결과로 노동의 무거운 짐과 고통의 멍에를 지고 살아가는 인생에게, 주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 쉼과 위로를 주시기를 고대하는 소망의 기도입니다.
- (2) **라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노아를 길렀습니다:** 아담이 회개하고 낳은 아들이 셋이듯이, 라멕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기른 자녀가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부모의 기도대로 세상의 위로와 안식과 소망을 주는 복된 자녀가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아버지들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녀 세대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세상에 전하게 하십니다.
- (3)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은 세상의 물결을 믿음으로 거스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치 ‘연어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영적인 생명력으로 세상을 거슬러 갑니다. 생명력이 없는 사람은 시대의 물결과 조류에 그냥 휩쓸려 가지만, 에녹과 노아는 죄로 오염된 문화와 세상의 압력을 거스르고 이겨냈습니다. 그 이유는 충만한 ‘하나님 의식’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가고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나눔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나는 어떤 기도와 믿음의 본을 세워야 하겠습니까?